FRANCIS ALŸS KADER ATTIA KOO JEONG A LEE BUL MARTHA ROSLER HITO STEYERL

P K M 21 NOV 2019

-5 JAN 2020

Co-curated by: Kyung-mee Park (박경미) & Saskia Draxler (사스키아 드락슬러)

Coordinated by : Yeran Jang (장예란)

PKM 갤러리는 2019년 한 해의 대미를 장식하는 전시로 그룹전 ≪영원한 현재Eternal Now≫를 개최한다.

PKM 갤러리의 박경미 대표와 독일 나겔-드락슬러 갤러리_{Galerie Nagel Draxler}의 사스키아 드락슬러^{Saskia Draxler} 대표가 공동 기획한 이번 전시는 진지한 사회 문화적 이슈를 다양한 매체를 통해 깊이 있게 통찰해 온 공통점을 갖는 세계적 명성의 작가 6인의 작품들이 소개되는 자리이다.

이번 전시의 타이틀 "영원한 현재Eternal Now"는 카데르 아티아^{Kader Attia, b.1970}가 2018년 광주비엔날레 전시에서 집단 기억과역사의 상처를 잊어서는 안 될 '영원한 현재Eternal Now'로 칭한 동명의 작품 시리즈에서 차용되었다.

본 전시에 참여한 6인의 작가들은 자유정신에 반(反)하는 제도권에 은유와 해학으로 대항하며 더 나은 사회를 열망하는 작업을 지속해 왔다. 이들의 작품은 현존하지만 드러나지 않는, 그러나 인식해야 할 문제들을 가시적인 형태로 소환하며, 관람객으로 하여금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지켜내야 할 영원한 가치가 무엇인지 반문해 볼 수 있게 한다. 이 작가들은 미묘하고 시적인 표현을 통해 각자의 삶을 통해 겪은 검열과 구속으로부터 해방되기를 바라는 동시에, 사회 정치적인 변화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해왔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프란시스 알리스Francis Alÿs, b.1959는 일상에서 시작된 인류학적, 지정학적 고민들을 시적이면서 실천적인 작업들로 펼쳐내 왔으며, 카데르 아티아는 '보수repair'의 개념을 통해 세계가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서구 중심의 헤게모니를 비판하는 작업을 고수해 왔다. 이불Lee Bul, b.1964은 설치, 회화, 퍼포먼스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시대를 막론한 인류의 유토피아를 향한 욕망과 진보의 명암을 냉정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작업을 지향해 왔다. 구정아Koo Jeong A. b.1967는 부서지거나 사라지기 쉬운 평범한 것들에 주목하고 익숙함과 새로움, 만들어진 현실과 허구의 경계에 질문을 던지며 이 질문들은 매우 섬세한 작품들을 통해 시적 조형 언어로 표현되고 있다. 마사 로슬러Martha Rosler, b.1946와 히토 슈타이얼Hito Steyerl, b.1966은 저술가이자 시각예술가로서 전쟁, 정치 이데올로기 및 사회 문제에 관해 적극적으로 발언하고 새로운 논쟁을 촉발시켜온 여성작가들이다.

FRANCIS ALŸS KADER ATTIA KOO JEONG A LEE BUL MARTHA ROSLER HITO STEYERL

PKM 21 NOV 2019 -5 JAN 2020

전시 개요

과거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현재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 역사는 정치와 해석의 대상이 되는 서로 다른 인위적인서사를 따른다. 진실은 독립체가 아니며, 지속적이고복잡한 성찰에서 비롯된다. 신자유주의적 경제 성장의논리가 21세기 지구상의 모든 삶의 측면을 지배하는가?가상현실은 일상생활과 경쟁하는 것일까? 또는 그에 또다른 층위를 부여하는 것일까? 진짜와 가짜 뉴스의 조밀한그물망 속에서, 소셜 미디어 상 클릭과 팔로워라는 새로운유행의 사냥 속에서, 비판적 판단은 종종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대치된다. PKM 갤러리 전관에서 개최되는 전시《영원한 현재》는 디지털 미디어가 강하게 지배하고 있는세계속 현실의 구조와 이에 대한 자각을 다루는 동시대의주요한 예술적 입장들을 포괄한다.

퍼포먼스와 설치 미술로 이루어진 **이불**Lee Bul, b.1964의 다양한 작업은 실크와 자개에서 유리섬유와 실리콘에 이르는 재료들을 의도적으로 충돌시키며, 미래주의 이론과 공상과학, 생명공학과 환상건축visionary architecture에 영향을 받아 꿈, 이상 및 유토피아를 탐구한다. 이불 최신작의 핵심은 풍경에 대한 연구인데, 이는 사적인 신체의 풍경, 이상적인 혹은 허구적인 풍경,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물리적인 세계를 포괄한다.

염색분체가 X-자로 접한 상태일 때, 염색체 간에 유전적물질의 교환이 일어나는 점을 가리키는 용어이자 출품조각의 타이틀 "키아즈마_{Chiasma}"는 인류의 끊임없는 갈등을 유발한 주제인 유토피아 대 디스토피아의 개념을 드러낸다.

2002년 10월, 빌 클린턴 미국 전 대통령은 이라크를 향한 선제 군사행동의 잠재적인 위험성을 두고 "오늘날의 선제적 조치가 아무리 정당하더라도 그것은 미래에 달갑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 무기와 폭탄이 얼마나 정밀한 지와 상관없이 이를 터트리면 무고한 사람들이 죽을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실제로 이라크의 '대량 살상 무기' 보유의 증거에 근거한 이라크 전쟁과 미국 주도의 이라크

침공은 이 지역에 불안정과 폭력, 파괴의 시대를 촉발한 중심 원인이 되었다. 베트남 전쟁1960-1975을 다룬 포토몽타주 시리즈 <House Beautiful: Bringing The War Home>으로 잘 알려진 마사 로슬러Martha Rosler, b.1946는 역사가 이러한 제2의 걸프전에서 되풀이되는 것을 목격했다. 로슬러는 몽타주 양식으로 회귀하여 이라크 및 아프가니스탄 전쟁 사진과 포즈를 취한 모델 및 값비싼 미제 인테리어 잡지 사진을 병치시켰다. 전쟁 희생자들이 말끔한 거실에 나타나거나 사진 촬영을 위한 세트 위를 걸어가고, 패션 모델이 도심 또는 사막 같은 교전交戰 지역을 가로지른다. 1960년대와 70년대에 사람들의 집으로 전쟁을 끌어들인 것은 텔레비전이었던 반면, 2000년대에는 폭발적으로 증가한 뉴 미디어, 생방송, 가상 비디오 게임 등이 사람들의 집뿐만 아니라 정신에 직접적으로 전쟁을 끌어들였다. 로슬러의 몽타주는 숨어있는 진실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모두 알고 함께 하고 있지만, 아무런 액션도 취하지 않는 무언가를 보여준다. 즉, 작품들을 깊이 관찰하면 해외 분쟁지역에서 일어나는 죽음이나 강탈이 가정에서의 편안한 삶과 분리될 수 없음이 드러나게 된다.

또 다른 작품 <Reading Hannah Arendt: for an American in the 21st Century>는 20세기 철학자 한나 아렌트의 글을 영어와 독일어로 투명 커튼 위에 투사한 시리즈로, 전체주의 및 전쟁에 대한 보다 직접적인 해석이 제공된다.

독일 태생의 **히토 슈타이얼**Hito Steyerl, b.1966은 영상제작가이자 미술가로서 디지털 세계, 미술, 자본주의의 복잡한 특성이나 인공지능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깊이 연구한다. "그 어떤 디지털 기술도 'power'가 필수적이다"는 전제에서 시작하는 슈타이얼의 최신작은 전류, 식물이나 천연 원소에 내재된 생태계적 힘, 그리고 우리의 환경을 형성하는 권력의 복잡한 네트워크와 같이 'power'라는 단어 자체가 가지는 다양한 의미를 음미한다. 슈타이얼의 미술에서 리얼리티는 오늘날 우리의 삶과 정체성을 형성하는 시청각 미디어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고찰되며, 이러한 상호작용이 인간의 삶에 지장을 주고 있음을 강조한다. 부분적으로

컴퓨터 애니메이션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슈타이얼의 미감은, 유튜브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전파되는 시각 자료에서 강하게 영향을 받았다.

카테르 아티아 Kader Attia, b.1970의 조각 <Eternal Now>는 한국 전통 가옥의 대들보 나무로 만들어졌다. 작가는 고목 기둥의 갈라진 틈과 뜯겨 나간 곳에 철제 스테이플 심을 박고, 이 상처를 '봉합 repair'이라고 일컫는다. 작품에 사용된 목재는, 대부분의 한옥이 일제 강점기에서 한국 전쟁 그리고 새마을운동에 이르는 한국의 폭력적인 과거사속에서 유실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다. 역사적 진보의 양면성에 대한 아티아의 생각이 반영된 <Eternal Now>는 사회 정신병리학적인 흔적을 남겨온 상처와 그 치유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구정아^{Koo Jeong A. b.1967}는 1990년대 이래로 장소 특정적 작업을 통해 공간을 재창조하는 작업을 지속해왔다. 구정아의 작업은 건축적 요소, 회화, 소설, 시, 출판물, 설치, 조각, 영화, 음향 작업, 그리고 건축 프로젝트를 아우르며 현실과 비현실 존재와 비존재 사이의 경계 너머를 지향한다. <Seven Stars>는 현대 사회의 특징이기도 한 유동성, 자유로운 움직임, 폭넓은 경험을 탐험하는 작가의 <야광 스케이트보드 공원> 프로젝트와 같은 연장선 상의 작품이다. <야광 스케이트보드 공원>은 그의 가장 최근 프로젝트 시리즈로서 이 장소 특정적 작업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밤에만 그 공간의 존재가 드러난다. <Seven Stars> 역시 작품 속 화면 속 이미지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밤에만 드러난다. 또한 증강현실 프로젝트로 Acute Art와 협업하여 현재 런던에서 전시 중인 <Destiny> 작품 역시 Acute Art와 PKM Gallery site의 연결로 전시 기간 중에 스마트 폰 앱을 이용하여 PKM 공간 내에서 체험할 수 있다.

한 소년이 연을 날리고 있다 … 영상에서는 오직 볼 수 있는 것은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위로, 아래로, 빠르게 다시 왼쪽으로 끌려다니며, 알 수 없는 힘에 따라 반응하고 있는 몸이다. 허나 이는 소년의 몸뿐만 아니라 소년의 몸과 교묘한 미메시를 이루는 자연의 몸이며, 내가 소위 "비지배의 지배"라고 부르는, 가장 위대한 게임이자, 자연과 인류를 지배하는 인간의 가이드, 목표, 전략을 하나로 모은 것이다. 프란시스 알리스 Francis Alijs, b.1959는 공공의 장소와 일상을 아이들의 놀이적 상상력을 통해 탐험함으로써 친밀하면서도 정치적인 견해를 제시한다. 이 영상 작업이 카불의 주류 미디어 보도에 대한 대안이라면, 함께 전시되는 회화 시리즈는 어떤 매체에서건 전쟁의 일상적

현실이 표현되기 어렵다는 점을 환기한다. 마치 추상 일련의 기하학 회화와 같은 작업은 알리스가 아프가니스탄을 돌아다니며 준비 작업을 하고, 영상을 녹화하여 이를 편집하며 보냈던 2010년부터 2014년 사이에 발견한 컬러 바 조합이다. 텔레비전 프로그래밍 상의 테스트 패턴으로, 영상 기술자들에 의해 사용되었던 컬러 바는 텔레비전 화면에서 보이는 색도와 휘도의 차이를 조정하기 위한 전기 신호이다. 따라서, 알리스의 회화 버전은 필연적으로 삽화가 될 수 없다. 그러나 매체 자체의 문제를 떠나서, 알리스의 작업은 그가 아프가니스탄에서 지내면서 목격한 것들을 이미지로 완벽히 전환할 수 없음을 나타내고 있다.

《영원한 현재》의 참여작가들은 모두 "해방"이라는 섬세한 주제를 다루고 탐구한다. 미묘하고 섬세한 표현으로 가득 찬 이들의 작품들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사이에서 상호 작용하며, 그 과정에서 사회정치적인 변화를 직간접적으로 이끌어 나간다.

FRANCIS ALŸS KADER ATTIA KOO JEONG A LEE BUL MARTHA ROSLER HITO STEYERL

PKM 21 NOV 2019 -5 JAN 2020

Exhibition Overview

Our understanding of the past influences our lives in the present. History follows different, man-made narratives that are subject to politics and interpretation. Truth is not an entity, but it emerges from continuous complex reflection. Does the neoliberal narrative of economic growth dominate all aspects of life on the planet in the 21st century? Is virtual reality competing with everyday life, or is it adding another layer to it? In the dense mesh of real and fake news, and in the hunt for the new currency of clicks and followers on social media, critical judgment is often replaced by fast opinion making. The exhibition *Eternal Now*, presented throughout the premises of PKM and PKM+, includes important artistic positions of the presence, that question the construction and perception of reality in a world strongly dominated by digital media.

Lee Bul's diverse body of work comprises of performance and installation art that explores dreams, ideals and utopias influenced by futurist theories and science fiction, bioengineering and visionary architecture, whilst making use of deliberately clashing materials that range from silk and mother of pearl to fiberglass and silicone. At the core of her most recent work is an investigation into landscape, which for the artist includes the intimate landscape of the body, ideal or fictional landscapes and the physical world that surrounds us.

Her sculpture titled *Chiasma*, a term referring to a point where the exchange of genetic material occurs between chromosomes when paired chromosomes are in X-shaped contact, represents the concept of Utopia vs. Dystopia, which is the subject of human being's unceasing conflicts.

In October 2002 former U.S. President Bill Clinton warned about the possible dangers of preemptive military action against Iraq: "As a preemptive action today, however well-justified, may come back with unwelcome consequences in the future.... I don't care how precise your bombs and your weapons are, when you set them off, innocent people will

die." The Iraq war, and the US-led invasion of Iraq, based on purported evidence for the country's possession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can be seen as the central causative event precipitating decades of instability, violence, and destruction in the region. Martha Rosler, whose wellknown series of photomontages addressing the Vietnam War 'House Beautiful: Bringing The War Home' goes back to the 1960s and 1970s, saw history repeating itself during the new Gulf Wars. She returned to the format of the montage. juxtaposing magazine pictures of posing models and expensive domestic interiors with pictures from the wars in Iraq and Afghanistan. While in the 60s and 70s it was TV that brought the war into people's homes, in the 2000s an exploding variety of new media brought war not only into our homes but also seemingly directly into people's mind. Rosler's montages do not reveal a hidden truth: they show in fact what everybody knows and what we all live with, without taking action. But a deeper look also reveals the inseparability of our comfortable lives at home and the dispossession and death of those in war zones abroad.

Rosler's work Reading Hannah Arendt (Politically, for an American in the 21st Century), a series of transparent curtains with quotations from the writings, in both English and German, of the twentieth-century philosopher, offer a more direct analysis of totalitarianism and war.

The sculptures of **Kader Attia's** project, *Eternal Now*, are made of wood from traditional Korean houses. Attia applied metal staples to the cracks and tears of the wooden beams. They appear as visible scars of what he calls "The Repair". The wood he is using is not easy to find, since most of the traditional houses were destroyed in Korea's violent conflicts of the past, from the Japanese colonial era and Korean War to the new village movement. The works reflect Attia's view on the ambivalent nature of historical progress, which can be regarded as a process of injury and repair that leaves its traces in social psychopathology.

Hito Steyerl is a German filmmaker and artist whose work explores the complexities of the digital world, art, capitalism, and the implications of Artificial Intelligence for society. Beginning from the premise that 'power is the necessary condition for any digital technology', the artist in her recent works considers the multiple meanings of the word, including electrical currents, the ecological powers of plants or natural elements, and the complex networks of authority that shape our environments. Reality, in Steyerl's art, is always considered in its interplay with the audiovisual media that shape the fabric of today's lifeworld and our identities, highlighting their disruptive impact on human lives. In part based on computer animations, the aesthetic of Steyerl's is strongly informed by the visuals disseminated through online platforms like YouTube.

Since the 1990s **Koo Jeong A** has been working on the reinvention of spaces with site specifc works. Her works frequently include architectural elements, drawings, fictions, poetries, publications, installations, sculptures, films, audio works and architecture projects. Koo's most recent project is a glow-in-the-dark skatepark series. Her paintings *Seven Stars* are the reflections from this outdoor skatepark project, which explores notions of fluidity, of free movement and wide range of experiences that characterize contemporary society. Like this site-specific work, the image on the canvas shines more at night when nothing is seen. Lenticular prints *Curiousssa* which are portals and storyboards for her past 3D animations will also be showcased. *Curiousssa* is one of the two natures of *Ouss* that is paradise, or fantasy world, a valid language, and country conjured up by the artist.

A boy is flying a kite. (...) All you see is the body in action with unknown forces, pulling to the left, pulling to the right, up, down, quick, over to the left again, and so on and on. This is not only the body of the boy but the body of the world in a deft mimesis of each other, amounting to what I call "the mastery of non-mastery" which, after all, is the greatest game of all, a guide, a goal, a strategy—all in one—for dealing with man's domination of nature, including human nature. By exploring public space and the everyday through the playful imagination of children, Francis Alÿs presents an intimate yet political view of the universal and unifying nature of games. While the video offers an alternative to the habitual mainstream media coverage of Kabul, a series of accompanying paintings reminds us of the

difficulty of representing the daily reality of war through any medium. Deceptively looking like abstract geometric paintings, these works show a repertoire of color bar combinations that the artist came across between 2010 and 2014, the period during which he was scouting, preparing, filming, and editing the video in Afghanistan. Used by video engineers as test patterns in between televised programming, color bars are electronically produced to correct chrominance and luminance on TV screens. Alÿs's painted versions, thus, are bound to fail as illustrations. Yet more so than challenging the issue of medium specificity, they reflect the artist's impossibility of converting his experiences in Afghanistan into images.

FRANCIS ALŸS KADER ATTIA KOO JEONG A LEE BUL MARTHA ROSLER HITO STEYERL

21 NOV 2019 -5 Jan 2020

PKM

작가 소개

프란시스 알리스 FRANCIS ALYS, b. 1959

벨기에 앤트워프에서 태어나 1986년 멕시코대지진 이후 국제구호활동을 위해 멕시코시티로 이주하여 활동하고 있는 작가 프란시스 알리스는 일상을 관찰하여 마주하게 되는 지정학적, 인류학적 이슈들을 작가 특유의 시적인 감성과 다양한 미술매체로 전달한다. 작가는 벨기에 투르네 건축학교_{Institut d'Architecture de Tournai} 및 및 베니스 건축고등연구소_{Istituto Universitario di Architettura di Venezia}를 졸업했다. 런던 테이트모던, 뉴욕 현대미술관, 멕시코 타마요 현대미술관, 하바나 국립미술관, 아트선재센터 등 정상급 미술기관에서 개인전을 개최했으며, 카셀도큐멘타, 베니스비엔날레, 이스탄불 비엔날레, 광주 비엔날레 등 유수의 국제미술행사에 초청된 바 있다. 작가는 런던 아트아이콘Art Icon, Whitechapel Gallery (2020), 암스테르담 EYE아트&필름상(2018) 등을 수상하였다.

카데르 아티아 Karder Attia, b. 1970

프랑스-알제리 출신의 카데르 아티아는 파리 외곽, 알지에, 콩고, 베네수엘라의 서로 다른 문화들 사이에서 살아온 작가 자신의 경험을 작업의 출발점으로 삼아, 서구 근대문화의 헤게모니가 전 지구에 미치는 지속적인 영향을 역동적이고 윤리학적인 작업을 통해 탐구해왔다. 파리 뒤페레 고등 응용미술학교Ecole Supérieure des Arts Appliqués "Duperré", Paris, 바르셀로나 에스콜라 마사나Escola de Artes Applicades "La Massana", Barcelona 파리 장식미술학교Ecole Nationale Supérieure des Arts Décoratifs, Paris에서 수학했으며, 최근의 주요 전시로는 2018 광주비엔날레, 제57회 베니스비엔날레, 런던 헤이워드 갤러리 개인전 《The Museum of Emotion》, 호주 현대미술센터 개인전, 로잔느 미술관 개인전 《The Injuries are here》, 앤트워프 미들하임 미술관 《Culture, another Nature repaired》 등이 있다. 2015년 마르셀 뒤샹상Prix Marcel Duchamp, 2017년 후안 미로상과 양현 미술상 등 국제적인 예술상을 다수 수상하였다.

구정아 Koo Jeong A, b. 1967

여러 장소에서 거주하며 활동하는 작가 구정아는 사라지기 쉬운 일상의 장면과 사물들을 포착하여 평범함의 시적인 측면을 일깨우는 동시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만들어진 현실과 허구의 경계에 질문을 던져왔다. 작가는 쿤스트할레 뒤셀도르프, 디아 재단_{DIA Art Foundation} 및 디아 비콘 미술관_{Dia:Beacon}, 파리 퐁피두 센터 등에서 개인전을 개최하며 세계적인 작가로 발돋움했으며, 이외에도 베니스 비엔날레, 리버풀 비엔날레, 광주 비엔날레와 뉴욕 유대인박물관, 솔로몬 R. 구겐하임미술관, 루이비통 파운데이션, 한국 국립현대미술관 등의 유수 단체전에 참여했다. 2002년 휴고보스상 최종후보, 2005년 에르메스 미술상 수상자, 2016년 주영한국문화원 올해의 작가로 선정된 바 있다. 올해 밀라노 트리엔날레에서는 구정아가 2012년부터 이어온 장소특정적 설치 프로젝트 <glow-in-the-dark skatepark>를 만나볼 수 있다.

이불 Lee Bul, b. 1964

서울에서 거주 및 활동하는 작가 이불은 날카로운 사회비판과 역사의식, 유토피아에 관한 인본주의적 탐구 속에 개인적 내러티브를 투영시킨 강렬한 작업들로 1980년대 후반부터 현대미술계를 선도하는 한국 대표작가로 자리매김해왔다. 작가는 홍익대학교에서 조각을 전공했으며, 뉴욕 현대미술관, 뉴뮤지엄, 솔로몬 R. 구겐하임미술관, 무담 룩셈부르크, 런던 헤이워드 갤러리, 베를린 마틴 그로피우스 바우 등 세계 정상급 미술기관에서 개인전을 가졌다. 2012년 아시아 여성작가 최초로 도쿄 모리미술관에서 대규모 회고전을 개최했으며, 2018년 베니스비엔날레 본 전시에 한국작가로는 유일하게 1999년 이후 한 번 더 초청되어 동시대 최고작가로서의 위용을 증명하였다. 이불은 1998년 휴고보스상 최종후보, 1999년 베니스비엔날레 특별상, 2014년 광주비엔날레 눈예술상, 2019년 호암상 예술상 수상자로 선정된 바 있다. 그의 작품은 삼성 리움미술관, 아트선재센터, 가나자와 21세기 현대 미술관, 로스앤젤레스 현대미술관 등에 소장되어 있다.

마사 로슬러 Martha Rosler, b. 1943

뉴욕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마사 로슬러는 구겐하임미술관 평생 공로상, 어노미머스 워스 어 우먼 재단상, 오스카 코코슈카상 등을 수상한 세계적인 작가다. 그는 공공 및 일상의 영역에서 여성이 겪는 문제들에 관해 주목함과 동시에 1960년대 후반부터 영토 밖 전쟁과 국가 안보 행위를 일반의 가정생활과 연계하는 포토몽타주 시리즈 <House Beautiful: Bringing the War Home>를 지속해왔다. 공항과 도로에서 주택공급과 젠트리피케이션에 이르기까지 공공장소에 관련한 다수의 비평과 사진, 미술, 글쓰기에 관한 책들을 출간한 바 있다. 뉴욕시립대학교와 캘리포니아대학교에서 학사와 석사 학위를 취득한 작가는 최근의 주요 전시로 코스트뮤지엄 바젤, 뉴욕 현대미술관, 시애틀미술관, 바르샤바 현대미술관 등에서 개인전을, 뉴욕 휘트니미술관, 브루클린미술관, 워싱턴 허시혼미술관, 런던 테이드모던, 호주 빅토리아미술관 등에서 단체전을 가졌다.

히토 슈타이얼 Hito Steyerl, b. 1966

베를린 기반의 작가 히토 슈타이얼은 포스트 인터넷 시대의 이미지의 유통과 확산에 주목하고, 이를 파운드푸 티지_{found} footage, 가상 드라마, 일인칭 보이스-오버, 팝음악 사운드 트랙 등을 혼합한 비디오 에세이_{video essay}로 구현 하는 작업으로 유명하다. 슈타이얼은 2019년 'Power 100'(국제 미술잡지 아트리뷰에서 매년 선정하는 동시대 영향력 있는 예술가 100인) 4위에 올라 국제적 입지를 확고히 했으며, 내년 8월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개인전을 앞두고 있다. 도쿄 비주얼아 트아카데미Academy of Visual Arts, Tokyo와 뮌헨 영화학교University of Television and Film, Munich를 졸업하고, 빈 예술 아카데미Academy of Fine Arts, Vienna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로스앤젤레스 현대미술관, 런던 ICA, 스톡홀름 현대미술관 등 세계유수의 미술기관에서 개인전을 가졌으며, 베니스 비엔날레, 베를린 비엔날레, 광주 비엔날레 및 뉴욕 현대미술관, 휘트니미술관, 헬싱키 현대미술관 등의 단체전에 참여하였다. 슈타이얼의 작품은 뉴욕 솔로몬 R. 구겐하임 미술관, 암스테르담 스테델릭미술관, 런던 테이트 등에 소장되어 있으며 국내 번역된 작가의 저서로는 『스크 린의 추방자들』(워크룸프레스, 2016)와 『진실의 색』(워크룸프레스, 2019)이 있다.

큐레이터 소개

박경미 Kyung-mee Park

PKM 갤러리 대표 박경미는 제49회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 커미셔너를 역임했으며, 2001년 PKM 갤러리를 개관하고 현대미술의 흐름을 첨예하게 담아내는 국내외 유수 작가들의 전시 프로그램을 일관되게 운영해왔다. 운형근, 이불, 권진규, 코디최, 배영환 등 한국 화단을 대표하는 작가들의 전시를 개최하는 동시에 존 발데사리 $_{\text{John}}$ $_{\text{Baldessari}}$, 올라퍼 엘리아는 $_{\text{Olafur}}$ $_{\text{Eliasson}}$, 댄 플래빈 $_{\text{Dan}}$ $_{\text{Flavin}}$, 카스텐 홀러 $_{\text{Carsten Höller}}$, 클래스 올덴버그 & 코셰 반 브루겐 $_{\text{Claes}}$ $_{\text{Oldenburg}}$ & $_{\text{Coosje}}$ $_{\text{van}}$ $_{\text{Bruggen}}$ 등 세계적인 작가들을 국내에 소개하였다. 또한 2000년대 중반부터 아트바젤 $_{\text{Art}}$ $_{\text{Basel}}$, 프리즈 $_{\text{Frieze}}$, 피악 $_{\text{Fiac}}$ 등 명망 높은 국제 아트페어에 꾸준히 참여함으로써 한국 미술이 세계 무대의 중심에 진출하는 데 이바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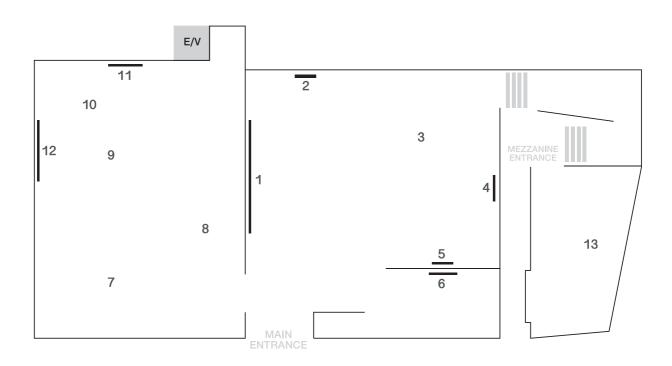
사스키아 드락슬러 Saskia Draxler

사스키아 드락슬러는 갤러리스트이자 기획자, 작가, 강연가로 2013년부터 독일 쾰른, 베를린, 뮌헨에 위치한 나젤 드락슬러 갤러리Gallerie Nagel Draxler, 1990-의 공동대표를 역임하고 있다. 드락슬러는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 대학교 Frankfurt-am-Main University에서 철학, 문학, 공연과학을 전공했으며, 아트포럼ARTFORUM, 아트넷artnet, 프리즈frieze 등에 평론을 기고했다. 북경 중앙미술학원Central Academy of Fine Arts Beijing, 빈 쿤스트할레 엑네르가세Kunsthalle Exnergasse, Vienna, 베를 린 예술아카데미Akademie der Künste, Berlin, 요하네스버그 괴테 인스티튜트 Goethe Institut, Johannesburg 등에서 강연하거나 전시를 기획했고 프랑크푸르트, 드레스덴 등에서 다수의 공공 미술 프로젝트를 운영한 바 있다.

FRANCIS ALŸS KADER ATTIA KOO JEONG A LEE BUL MARTHA ROSLER HITO STEYERL

PKM

21 NOV 2019 -5 Jan 2020



1 MARTHA ROSLER

House Beautiful: Bringing the War Home, new series, 2004

Inkjet print

51×61 cm, 61×51 cm. (Framed) *Details on the back page.

2 KADER ATTIA

Repaired Broken Mirror, 2017

Mirror, iron wire, wooden support 30×25×3 cm.

3 LEE BUL

Chiasma, 2005

Hand-cut polyurethane panels on aluminum armature, acrylic coating 195×383×395 cm.

4 KOO JEONG A

Seven stars, 2019

Pigment painting on canvas 91.5×121.5×3.5 cm.

5 LEE BUL

Perdu XXXI, 2019

Mother of pearl, acrylic paint on lacquered wooden base panel, steel frame 189,5×83,3×6,6 cm, (Triptych, Framed)

6 LEE BUL

Perdu XXXII, 2019

Mother of pearl, acrylic paint on lacquered wooden base panel, steel frame 83.3×126.6×6.6 cm. (Diptych, Framed)

7 HITOSTEYERL

Power Plants (Ed. 6/7+2AP), 2019 Stainless steel scaffolding structures, LED panels, multichannel video loop, moving text lines 335×216×210 cm

Installation dimensions variable.

8 KADERATTIA

Eternal Now, 2018

Wooden beams from traditional Korean houses, metal staples, metal plinth 244×24 cm.

9 KADERATTIA

Eternal Now, 2018

Wooden beams from traditional Korean houses, metal staples, metal plinth 221.5×14 cm.

10 KADERATTIA

Eternal Now, 2018

Wooden beams from traditional Korean houses, metal staples, metal plinth 272×15×15 cm.

11 MARTHA ROSLER

Iraq & Afghanistan (Ed. 3/10+2AP) 2008

Inkjet Print Diptych 76.2×101.6 cm. (each)

12 MARTHA ROSLER

Invasion (Ed. 3/10+2AP), 2008 Inkjet print 79×105 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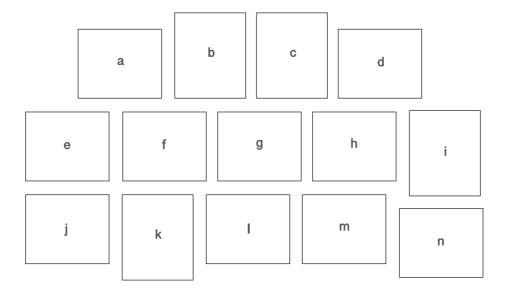
13 MARTHA ROSLER

Reading Hannah Arendt (Politically, for an American in the 21th Century)

(Ed. 1/3), 2006

Vinyl banners printed with text Installation dimensions variable.

PKM



a MARTHA ROSLER

Amputee (Election II) from the series: House Beautiful: Bringing the War Home, new series (Ed. 4/10+2AP), 2004 Inkjet print 51×61 cm.

b MARTHA ROSLER

Hooded Captives from the series: House Beautiful: Bringing the War Home, new series (Ed. 7/10+2AP), 2004 Inkjet print 61×51 cm.

c MARTHA ROSLER

Wine (Muktada) from the series: House Beautiful: Bringing the War Home, new series (Ed. 6/10+2AP), 2004 Inkjet print 61×51 cm.

d MARTHAROSLER

Gladiators from the series: House Beautiful: Bringing the War Home, new series (Ed. 7/10+2AP), 2004 Inkjet print 51×61 cm.

e MARTHAROSLER

Red and White Stripes (Bagdad Burning) from the series: House Beautiful: Bringing the War Home, new series (Ed. 7/10+2AP), 2004 Inkjet print 51×61 cm.

f MARTHA ROSLER

Vanitas from the series: House Beautiful: Bringing the War Home, new series (Ed. 6/10+2AP), 2004 Inkjet print 51×61 cm.

g MARTHA ROSLER

Photo Op from the series: House Beautiful: Bringing the War Home, new series (Ed. 8/10+2AP), 2004 Inkjet print 51×61 cm.

h MARTHAROSLER

Back Garden from the series: House Beautiful: Bringing the War Home, new series (Ed. 6/10+2AP), 2004 Inkjet print 51×61 cm.

i MARTHA ROSLER

Lounging Woman from the series: House Beautiful: Bringing the War Home, new series (Ed. 7/10+2AP), 2004 Inkjet print 61×51 cm.

j MARTHA ROSLER

Election (Lynndie) from the series: House Beautiful: Bringing the War Home, new series (AP 1/2), 2004 Inkjet print 51×61 cm.

k MARTHA ROSLER

Trophy (Running Woman) from the series: House Beautiful: Bringing the War Home, new series (Ed. 1/10+2AP), 2004 Inkiet print

61×51 cm.

I MARTHA ROSLER
Walker
from the series: House Beautiful:
Bringing the War Home, new series
(Ed. 1/10+2AP), 2004
Inkjet print
51×61 cm.

m MARTHA ROSLER

Saddam's Palace from the series: House Beautiful: Bringing the War Home, new series (Ed. 8/10+2AP), 2004 Inkjet print 51×61 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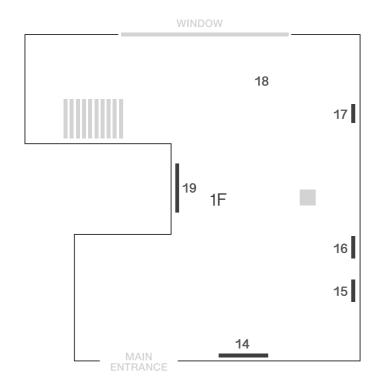
n MARTHAROSLER

Cellular from the series: House Beautiful: Bringing the War Home, new series (Ed. 2/10+2AP), 2004 Inkjet print 51×61 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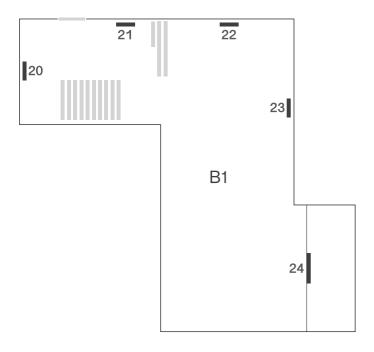
FRANCIS ALŸS KADER ATTIA KOO JEONG A LEE BUL MARTHA ROSLER HITO STEYERL

PKM+

21 NOV 2019 -5 Jan 2020



- 14 KOO JEONG A, **CURIOUSSSA** (Ed. 2/10+1 AP), 2018 Lenticular print, 89.4×118.9 cm. (Image)
- **15** KOO JEONG A, **Seven stars**, 2019 Pigment painting on canvas, 91.5×61×3.5 cm.
- **16** KOO JEONG A, **Seven stars**, 2019 Pigment painting on canvas, 91.5×61×3.5 cm.
- 17 KOO JEONG A, After CURIOUSSSA, 2016-2017 Oil painting on canvas, 35.5×25.5×3.5 cm.
- 18 KOO JEONG A, Shape of dimension, 2019 Volcanic rock, a crystal diamond, 16×16×13 cm, styrofoam plinth, 27.5×21×1 cm.
- 19 KOO JEONG A, **CURIOUSSSA** (Ed. 2/10+1 AP), 2018 Lenticular print, 89.4×118.9 cm. (Image)
- * KOO JEONG A, **Density**, 2019, AR. Can be tracked down everywhere in PKM Gallery through the mobile app 'Acute Art'.



- 20 FRANCIS ALYS, Untitled (Light Dragoons, "TRF"), 2011 Encaustic on wood, 22.5×22.5×1.8 cm. (left) Untitled (Sleeping dog), 2011, Balkh, Afghanistan Oil on canvas on wood, 13×18.1 cm. (right)
- 21 FRANCIS ALYS, **Untitled**, 2011
 Oil on canvas on wood, 29×35.5 cm. (left) **Untitled**, 2011. Herat, Afghanistan
 Oil on canvas, 12.5×17.5 cm. (right)
- 22 FRANCIS ALYS, **Untitled**, 2011
 Oil on canvas on wood, 22.5×17.8×1.8 cm. (left) **Untitled**, 2011, Mazar-e Sharif, Afghanistan
 Oil on canvas on wood, 13×18.1 cm. (right)
- 23 FRANCIS ALYS, Untitled, 2013
 Encaustic on canvas on wood, 24.5×14.9×1.8 cm. (left)
 Untitled, 2013, Helmand, Afghanistan
 Oil on canvas, 12.5×17.5 cm. (right)
- **24** FRANCIS ALYS, **Children's Game #10 Papalote**, 2011 Balkh, Afghanistan, Video, 4:30 min.

PKM GALLERY

Eternal Now 展 주요 작품 이미지 캡션

Nov. 21, 2019 - Jan. 5, 2020 | PKM&PKM+

1.

*고해상도 이미지는 갤러리 웹하드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www.webhard.co.kr ID:pkmgallery | PW:pkmg 게스트폴더_내리기전용_ **Eternal Now 폴더**



Francis Alÿs

(Left) *Untitled*, 2011

Oil on canvas on wood

22.5 x 17.8 x 1.8 cm Framed

(Right) *Untitled*, 2011

Mazar-e Sharif, Afghanistan

Oil on canvas on wood

13 x 18.1 cm

Courtesy of the artist & Jan Mot,

Brussels & PKM Gallery, Seoul.



Francis Alÿs
 (Left) *Untitled*, 2011
 Oil on canvas on wood
 29 x 35.5 cm
 (Right) *Untitled*, 2011
 Herat, Afghanistan
 Oil on canvas
 12.5 x 17.5 cm
 Courtesy of the artist & Jan Mot
 Gallery, Brussels & PKM Gallery, Seoul

PKMGALLERY









3. Karder Attia

Eternal Now, 2018

Wooden beams from traditional Korean houses, metal staples, metal plinth 244 x 24 cm
Courtesy of the artist, Galerie Nagel
Draxler Berlin/ Cologne/ Munich, and
PKM Gallery Seoul.

4. Karder Attia

Eternal Now, 2018

Wooden beams from traditional Korean houses, metal staples, metal plinth 272 x 15 x 15 cm
Courtesy of the artist, Galerie Nagel Draxler Berlin/ Cologne/ Munich, and PKM Gallery Seoul.

5. Koo Jeong A

After CURIOUSSSA, 2016-2017
Oil painting on canvas after
CURIOUSSSA
45 x 35 x 2 cm
Courtesy the artist & PKM Gallery.

6. Koo Jeong A

After CURIOUSSSA, 2016–2017
Oil painting on canvas after
CURIOUSSSA
35.5 x 25.5 x 3.5 cm
Courtesy the artist & PKM Gallery.

PKMGALLERY.COM 40, Samcheong-ro 7-gil, Jongno-gu, Seoul, 110-230, Korea T.+82 2 734 9467-9 F.+82 2 734 9470

PKMGALLERY







Koo Jeong A
CURIOUSSSA (Ed. 2/10 + 1 AP), 2018
Lenticular print
89.4 x 118.9 cm
Courtesy the artist & PKM Gallery.



9. Lee Bul

Chiasma, 2005

Installation view, "Lee Bul: From Me,
Belongs to You Only," Mori Art

Museum, Tokyo, 2012

Hand-cut polyurethane panels on
aluminum amature

195 x 383 x 395 cm

Photo: Watanabe Osamu.

Courtesy: Mori Art Museum, Tokyo.



10. Lee Bul

Perdu XXXII, 2019

Mother of pearl, acrylic paint on lacquered wooden base panel, steel frame

Diptych 83.3 x 126.6 x 6.6 cm framed

Photo: Jeon Byung-cheol. Courtesy: Studio Lee Bul.

PKM GALLERY



11. Martha Rosler

Gladiators from the series: House
Beautiful: Bringing the War Home,
new series (Ed. 7/10+2AP), 2004
Inkjet Print
51 x 61 cm
Courtesy of the artist, Galerie Nagel
Draxler Berlin/ Cologne/ Munich, and
PKM Gallery Seoul.



12. Martha Rosler

Back Garden from the series: House
Beautiful: Bringing the War Home,
new series (Ed. 6/10+2AP), 2004
Inkjet Print
51 x 61 cm
Courtesy of the artist, Galerie Nagel
Draxler Berlin/ Cologne/ Munich, and
PKM Gallery Seoul.



13. Martha Rosler

Election (Lynndie) from the series:
House Beautiful: Bringing the War
Home, new series (AP 1/2), 2004
Inkjet Print
51 x 61 cm
Courtesy of the artist, Galerie Nagel
Draxler Berlin/ Cologne/ Munich, and
PKM Gallery Seoul.

PKMGALLERY







14. Martha Rosler

Photo Op from the series: House
Beautiful: Bringing the War Home,
new series (Ed. 8/10+2AP), 2004
Inkjet Print
61 x 51 cm
Courtesy of the artist, Galerie Nagel
Draxler Berlin/ Cologne/ Munich, and
PKM Gallery Seoul.

15. Martha Rosler

Saddam's Palace from the series:
House Beautiful: Bringing the War
Home, new series (Ed. 8/10+2AP),
2004
Inkjet Print
51 x 61 cm
Courtesy of the artist, Galerie Nagel
Draxler Berlin/ Cologne/ Munich, and
PKM Gallery Seoul.

16. Hito Steyerl

Power Plants, 2019
Scaffolding structures, LED panels (3,9 mm pitch), multichannel video loop (color, silent), moving text lines
Dimensions variable
Exhibition view: Power Plants,
Serpentine Galleries, London, 2019.
Serpentine Galleries AR application design by Ayham Ghraowi, developed by Ivaylo Getov, Luxloop
Courtesy the artist; Andrew Kreps
Gallery, New York; Serpentine Galleries, London; Esther Schipper, Berlin.

PKMGALLERY.COM 40, Samcheong-ro 7-gil, Jongno-gu, Seoul, 110-230, Korea T.+82 2 734 9467-9 F.+82 2 734 9470